

시교육감 장휘국-양형일 양강 ... 도교육감 장만채 독주체제

광주, 장 28.1% 對 양 24.7% ... 오차 범위내 접전

전남, 장만채 39.1% 김경택 15.6% ... 부동층 절반

광주 56%·전남 48.2% “잘한 결정”

시·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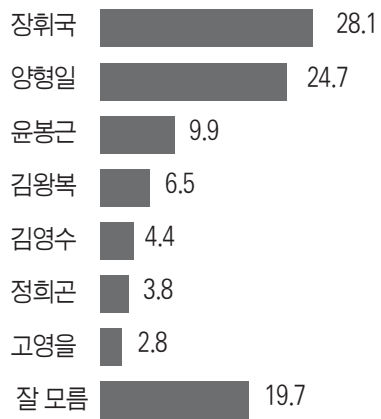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장만채 교육감이 독주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장휘국 교육감과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제선을 노리는 장 교육감은 28.1%의 지지를 받아 맨 앞에 섰다. 그 뒤를 양 전 총장이 24.7%로 바짝 뒤쫓고 있다. 오차범위인 3.4%포인트 차 접전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낸 장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과 전교조의 탄탄한 지지가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여성(27.2%)과 20대(27.5%)·40대(33.0%)·50대(29.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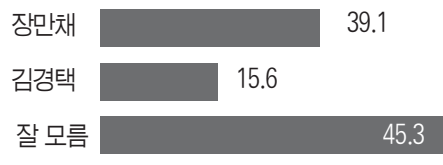
△광주교육감 후보 지지도(%)



반면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에 머물렀던 양 전 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20%대 중반으로 뛰어오르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양 전 총장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그는 남성(29.8%)과 30대

△전남교육감 후보 지지도(%)



(33.3%)·60대(27.1%)에서 장 교육감을 앞섰다.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이 9.9%의 지지를 얻어 뒤를 이었다.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 6.5%,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4.4%,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3.8%,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2.8% 순이었다.

응답자 중 19.7%는 ‘잘 모름’을 선택한 부동층이었다.

<전남도교육감=장만채 교육감의 독주 체제다.>

장 교육감은 39.1%의 지지를 받아, 15.

6%의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을 크게 앞섰다.

장 교육감은 남(46.1%)·녀(32.3%) 모두에서, 전 연령층(20대 44.9%, 30대 36.6%, 40대 52.1%, 50대 41.5%, 60대이상 28.3%)에서 김 총장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만, 김 총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지지층(29.8%)에서 장 교육감(27.6%)을 따돌렸다.

장 교육감의 독주는 지난 2월 황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선거구가 넓고 노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도 출마를 저울질했던 입지자들의 중도사퇴를 불렀다.

장 교육감은 현재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현장 간담회를 개최, 학부모·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초선거 공천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정에 대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 응답자의 56.0%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21.9%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남성은 62.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5.5%만이 부정적이었다. 여성은 50.1%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18.5%는 ‘잘못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긍정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20대 이하 53.7%, 30대 46.2%, 40대 48.8%, 50대 51.2%, 60세 이상 44.8%로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0.3%가 ‘잘한 결정’, 43.3%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3.0%가 긍정 평가했고 17.6%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전남의 경우 응답자의 48.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26.5%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남성은 5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2.4%만이 부정적이었다. 여성은 42.3%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20.8%는 ‘잘못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긍정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20대 이하 53.7%, 30대 46.2%, 40대 48.8%, 50대 51.2%, 60세 이상 44.8%로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34.9%가 ‘잘한 결정’, 39.7%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59.2%가 긍정 평가했고 21.9%만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분열된 야권표심 새정치로 합쳐져 72.6%

정당 지지도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으로 나눠졌던 야권 성향의 표심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로 합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정당지지도는 새정치민주연합 72.6%, 새누리당 7.9%, 통합진보당 5.4%, 정의당 1.0% 등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층은 11.3%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3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4.0%, 안철수 신당 30.6%로 나눠졌던 표심이 이탈 없이 결집했고, 신당에 대한 기대 효과로 8%가량 야권지지 층이 두터워졌다. 1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

가 10.7%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야권 통합으로 7.9%로 떨어졌다는 점도 미세한 변화 중 하나였다.

전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64.7%를 기록해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43.5%)과 안철수신당(23.0%)으로 나눠졌던 야권 표심이 대부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9.3%, 통합진보당 5.5%, 정의당 2.2%, 무당파 14.9% 순이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7.8%에 불과했던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3%로 미세하게 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권자 10명중 8명 “투표 하겠다”

투표참여 의향

광주지역 유권자 중 81.6%는 이번 6·4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전남지역 유권자도 75.7%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 광주 14.6%, 전남 21.1%는 사전투표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광주지역 유권자 96.2%가 선거당일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제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별로는 강은태 시장 지지층의 15.9%가 사전투표일에, 82.8%가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용섭 의원 지지층은

13.7%가 사전투표일에, 84.7%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공동추진위원장 지지층은 사전투표일에 11.1%, 선거당일 82.8%가 각각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전남지역 유권자 중 96.8%가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별로는 이낙연 의원 지지층의 21.4%는 사전투표일에 77.4%는 선거당일에 투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승용 의원 지지층은 18.0%가 사전투표일에 80.7%는 선거당일에 투표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형 전 군수의 지지층은 17.7%가 사전투표일에 81.3%는 선거당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도민 대부분 긍정적 ... 연령층 높을수록 더 높아

안철수 리더십 평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의 통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철회 등으로 ‘안철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절반 정도가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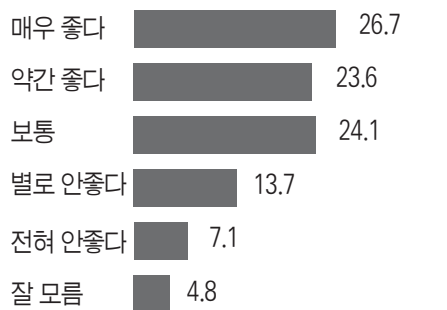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광주시민은 ‘매우 좋다’ 26.7%, ‘약간 좋다’ 23.6%로 50.3%가 우호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별로 안좋다’ 13.7%, ‘전혀 안좋다’ 7.1%로 20.8%가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성에서는 긍정 52.1% 대 부정 22.1%, 여성에서는 긍정 48.6% 대 부정 19.4%로 모두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연령대별로는 긍정 평가가 20대 이하 40.6%, 30대 50.2%, 40대 50.2%, 50대 52.5%, 60세 이상 57.6%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긍정 평가율이 더 높았다.

부정평가는 20대 이하 30.3%, 30대 20.1%, 40대 18.9%, 50대 19.2%, 60세 이상

△안철수 리더십-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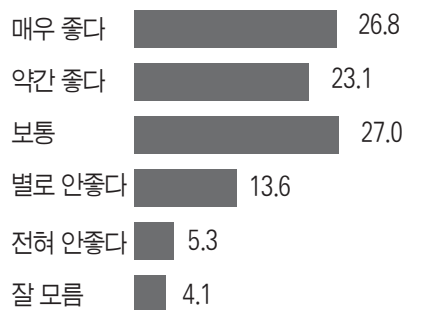
16.0%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21.5% 대 부정 51.1%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긍정 58.9% 대 부정 14.2%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전남도민의 경우 ‘매우 좋다’ 26.8%, ‘약간 좋다’ 23.1%로 49.9%가 우호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별로 안좋다’ 13.6%, ‘전혀 안좋다’ 5.3%로 18.9%가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성에서는 긍정 47.4% 대 부정 22.9%, 여성에서는 긍정 52.5% 대 부정 15.0%로 모두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안철수 리더십-전남(%)



또 연령대별로는 긍정 평가가 20대 이하 50.1%, 30대 41.8%, 40대 47.2%, 50대 52.1%, 60세 이상 54.5%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호적 평가 비율이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20대 이하 21.6%, 30대 25.8%, 40대 24.6%, 50대 15.4%, 60세 이상 12.8%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35.3% 대 부정 42.0%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긍정 57.8% 대 부정 11.6%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성·연령·지역별 표본추출

유선 전화조사 방식 진행

어떻게 조사했나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타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하룻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85명과 1069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광주일보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철회 방침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신당 창당 이후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유선 전화조사(ARS)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에 의해 표본을 추출한 뒤 유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모두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 2천만원에 월 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남: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여: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